

“전통 장류의 우수성 널리 알려야죠”

전남 10월 농촌융복합산업인 ‘해남에 다녀왔습니다’ 이승희 대표 선정

치유농장·전통음식교육 등 체험·관광 융복합 로드맵 구상 암 극복 후 장류에 관심, 전통장 차별화 연매출 4억원 달성

“전통장류를 테마로 한 치유농장 및 제철 식재료를 활용한 전통한식 레스토랑 운영, 다문화 여성 대상 한국전통음식교육 등 판로확보와 체험·관광이 융복합된 로드맵을 구상중입니다. 지금까지 쌓은 노하우와 현장경험을 토대로 전통장류사업을 희망하는 이들에게 체계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 전통 장류의 우수성을 알려겠습니다.”

전남도도가 10월 농촌융복합산업인으로 해남 소재 6차산업인중 경영체 ‘해남에 다녀왔습니다’의 이승희 대표를 선정했다. 대흥사와 고산 윤선도 유적지가 있는 삼산면에 자리한 이 대표의 ‘해남에 다녀왔습니다’는 가공실 60평과 체험·실습실 80평, 체험텃밭 600평, 장독대 750개를 놓고 된장, 간장, 청국장 등을 생산하고 있다. 전통음식교육농장과 민박시설도 갖췄다.

그는 지난 2001년 암으로 큰 수술을 받은 뒤 국산 콩으로 만든 된장, 청국장을 꾸준히 먹고 건강이 회복돼 전통 장류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2003년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한 ‘농촌여성 일감맞기 사업’에 선정돼 보조금 4000만원으로 가공실 등 전통장류 가공

기반을 갖추고 본격적으로 장류사업에 뛰어들었다.

특히 ‘귀한 장을 만들자’라는 신념으로 옛날 방식으로 장 만들기를 고집하고 있다. 이 대표가 생산한 3년된 전통된장은 수작업으로 만든 메주를 한달간 건조시켜 천일염으로 장을 담근 후 장독대에서 숙성 과정을 거쳐 상쾌화된다.

매년 장 만들기에 사용된 콩은 20t으로, 이중 12%는 직접 재배하고 나머지는 인근 농가들과 계약 재배한 고품질 국산콩을 엄선해 사용하고 있다.

전통 재래방식으로 만든 장류는 콩과 소금만을 사용해 만드는데 발효를 통해 체내 유익균이 많아져 면역력이 높아지고, 항암효과와 성인병 예방, 노화방지에 뛰어난 뿐만 아니라 숙성된 깊은 맛을 볼 수 있다.

이 대표는 참다래 수액을 넣은 고추장을 비롯 황칠간장, 황태된장 등을 만들어 특허를 받는 등 장을 가공한 다양한 제품을 개발해 판매중이다.

판로 확대와 전통장류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전남도 운영 소평을 남도장터, 해남미소 등 온라인 쇼핑몰과 함께 소비자 직거래를 통해 된장, 간장, 고추장, 청국장, 청국장장, 청국장분말 등 6종의 가공제



품을 판매하고 있다.

전통 장류 만들기 체험과 초·중·고 대상 바른 식문화 확산 교육 등 지난해 연간 5000여명의 체험객 방문을 이끌어 연매출 4억원을 달성했다.

강종철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앞으로도 우리 농산물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지역과 상생한 농촌 융복합산업 우수사례가 확산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영원한 제임스 본드’ 손 코너리 별세 영화계 큰 별 지다

첩보 영화 시리즈 ‘007’에서 1대 제임스 본드 역할을 연기한 영국의 원로 영화 배우 손 코너리가 지난 31일(현지시간) 사망했다. 향년 90세.

1930년 8월 25일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의 파운틴브리지 지역에서 태어난 코너리는 지난 8월 90세 생일을 맞았다.

그는 1962년 제작된 007 시리즈 첫 작품인 ‘007 살인번호’(원제 Dr. No)에서 최초의 제임스 본드 역할을 맡았다.

코너리는 007 시리즈 가운데 7편의 작품에서 주연을 맡으며 ‘섹시한 남성’이라는 역할 모델을 할리우드 영화계에 만들었다.

영화팬들 사이에서는 역대 007 중 최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코너리는 007 시리즈 이외에도 ‘오리엔트 특급살인’(1974년), ‘장미의 이름’(1986), ‘언터처블’(1987), ‘인디애나 존스:최후의 성전’(1989), ‘더록’(1996) 등 다수의 작품에 출연했고 2006년 공식 은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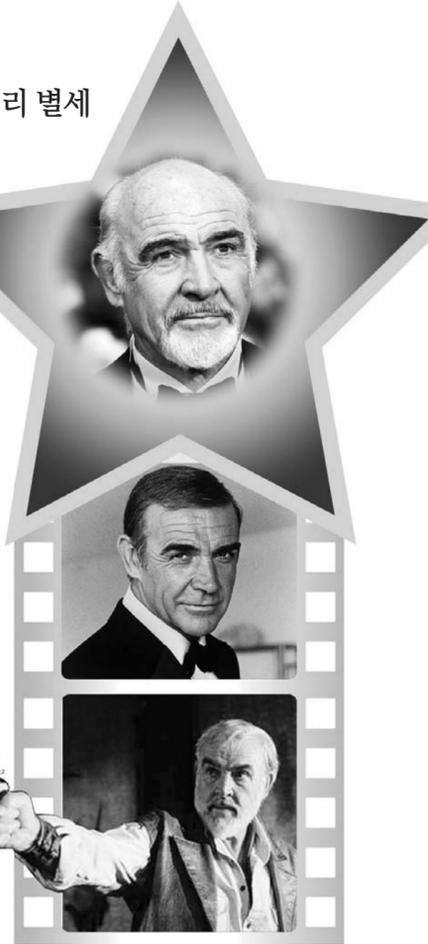
그는 수십년간 연기생활을 하면서 미국 아카데미상(오스카)과 2개의 영국영화TV 예술아카데미(BAFTA)상, 3개의 골든글러브상을 수상했다.

‘언터처블’에서 연기한 아일랜드 출신 경찰 역할로 1988년 오스카 남우조연상을 받았다.

그는 2000년 스코틀랜드 홀리루드궁에서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으로부터 기사 작위를 받았다.

죽어 재능이 있었던 코너리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입단 제의를 받기도 했지만 결국 연기를 택했다. 1954년 단역으로 본격적으로 연기 생활을 시작한 그는 이후 드라마와 영화 등에서 경력을 쌓았다. 1957년 BBC의 ‘블러드 머니’에서 첫 주연을 맡았다. 그를 세계적인 배우로 만든 것은 역시 ‘007 시리즈’였다.

여러 명의 배우가 몰랐지만 당시 제작자의 부인이 코너리의 매력에 섹시한 본드 역할과 어울린다고 추천했고, 결국 배역을 따냈다.



원작자인 플레밍은 처음에는 코너리가 본드 역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첫 작품을 본 뒤로는 이같은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에 그의 나중 소설에서 본드가 스코틀랜드 혈통을 일부 가진 것으로 묘사하기도 했다. 실제 코너리는 스코틀랜드에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있으며,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지지해왔다. 2014년 스코틀랜드 분리독립 주민투표를 앞두고 그는 독립을 위해 표를 던져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2003년 스코틀랜드가 독립하기 전에 돌아가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연합뉴스

“인류 최고의 장점인 ‘협력’…코로나 위기 극복 열쇠”

‘사피엔스’ 저자 유발 하라리



“인간만이 가진 최고의 장점은 ‘협력’입니다. 바이러스크리는 사람을 감염시키는 방법에 대해 조언해 줄 수 없지만, 한국의 한 의사가 아침에 발견한 것은 같은 날 저녁 브라질의 생명을 구할 수 있죠.”

‘사피엔스’의 저자이자 저명 역사학자·철학자인 유발 노아 하라리는 30일 열린 SBS D포럼(SDF)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가져온 유례없는 위기 속 인류가 가진 해답은 ‘협력’임을

강조했다.

반년 만에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하라리는 이날 온라인으로 진행된 행사에서 “오늘 날 인류는 그 어느 때보다도 단결돼 있고, 잘 협력하고 있으므로 지금의 위기 상황을 이겨 낼 수 있다”고 기조연설을

했다. 그는 인류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코로나19가 아

니라고 주장했다.

하라리는 “핵전쟁, 생태학적 붕괴, 인공지능(AI)과 같은 파괴적 기술의 부상은 단일 국가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며 “가장 큰 위험은 바이러스크리 자체가 아닌 인류 내면의 증오와 탐욕, 무지”라고 설명했다.

이러 미래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한 그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음모론이 아닌 과학을 믿어야 하며, 외국인·소수민족과 협력하며 가진 것을 공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2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0 걸어서 세계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1부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생방송 오늘 아침	15 KBC 모닝와이드 35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15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2~3부	50 찬란한 내 인생(재)	35 불새 2020
[9]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45 KBS 뉴스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누가 뭐래도(재) 40 지구촌 뉴스	45 카이로스(재)	10 SBS 뉴스 30 살맛 나는 오늘
[11]	00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재) 55 UHD 숨터(재)	00 좀비탐정(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0 동해수용대 50 뽀뽀 친구친구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정재영의 이슈인(재)
[1]	00 네트워크 공동기획 문화스캐치 50 안녕 우리말 55 지구를 지키는 20가지 제안	2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20 헬로킴즈 글로벌 동물 뉴스 50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2 30 미니다Q 55 KBS광주 열린마당(재)			00 뉴스브리핑
[3]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10 자동차부착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0 이 맛에 산다(재)	
[4]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사사건건	00 세상의 모든 다큐(재) 50 다큐멘터리 3일(재)	00 기분 좋은 날(재)	00 브라보 마이 라이프
[5]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50 통합뉴스룸 ET	00 5 MBC 뉴스 15 좌충우돌 만국 유람기 캠핑 인 코리아 스페셜	00 SBS 오뉴스 35 KBC저녁뉴스 50 배낭 메고 인생 내 컷
[6]	00 6시 내고향	30 2TV 생생정보	15 오메 전라도	50 닥터 365 55 특집 위풍당당 전라도(재)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우리말 겨우기	50 비밀의 남자	15 찬란한 내 인생 50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8]	30 누가 뭐래도	30 전교톱10		30 KBC 8 뉴스
[9]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30 축구야구말구	20 카이로스	00 생활의 달인
[10]	00 가요무대 50 더 라이브	40 개는 훌륭하다	40 MBC특선영화 <중인>	00 펜트하우스
[11]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라인			15 동상이몽2 너는 내운명
[12]	10 다큐 인사이트(재)	10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통합뉴스룸 ET(재)		35 나이트 라인

EBS1

06:00 한국기행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45 최고대 호기심딱지
06:2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정오뉴스	18:00 생방송 토크쇼 하니
07:00 꼬마버스 타요	12:10 EBS 비즈니스 리뷰 플러스	19:00 위베어 베어스 : 곰 브라더스
07:15 출동! 슈퍼윙스	12:25 지식채널e	19:30 자이언트 팽TV
07:30 뽀롱뽀롱 뽀로로	12:30 클래스 e	19:45 싱어즈:시대와 함께 울고 웃다
07:45 꼬마하어로 슈퍼액	13:00 EBS 다큐프라임	20:35 아주 특별한 기행
08:00 당당당 유치원	13:55 다문화 고부 열전	20:50 세계테마기행 1~2부
08:30 티시테시	14:45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유러 렐드마크 기행-로맨틱 그리스>
08:45 방귀대장 뽀뽀이	15:45 몬카토	21:30 한국기행
09:00 보로로 동화나라	16:15 로빈 후드	<시골 노부부부 삽니다 1부
09:15 핫도그만 만들어볼까요	16:30 당당당 유치원(재)	그대없이는 못 살아>
09:30 명탐정 피트	16:50 해오와 해오	21:50 EBS 다큐프라임
09:40 생방송 우리집 유치원	17:00 EBS 뉴스	22:45 신계속의 맛터사이드 다이어리
10:30 한국기행(재)	17:20 마사와 꿈	23:35 EBS 비즈니스 리뷰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30 출동! 슈퍼윙스	23:50 클래스 e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1월 2일(음 9월 17일 己酉) ☎ 010-9790-8237

<p>36년생 애지중지하여 왔던 바의 일부가 사라질 수도 있다. 48년생 강력한 역학 관계 하에 놓이는 판세이니라. 60년생 문서에 이로움이 있으니 잘 활용해 보자. 72년생 시험대에 오를 수도 있다. 84년생 기본에 충실하지 않는다면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96년생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다가 오는 이가 있을 것이니라. 행운의 숫자 : 48, 86</p>	<p>42년생 한꺼번에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느니라. 54년생 특별한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66년생 굳은 신념으로 추진해야 풍성한 수확을 예상할 수 있다. 78년생 노력하지 않는다면 밀릴 수밖에 없다. 90년생 눈앞의 일에만 급급해 한다면 멀리 내다 볼 수 없겠다. 02년생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리라. 행운의 숫자 : 49, 96</p>
<p>37년생 길손이 순조로움을 부르니 저절로 흥겨운 웃노래가 나올 것이다. 49년생 설마가 사람 잡는 법이니 조심하라. 61년생 금전상의 행운이 따를 수도 있는 날이다. 73년생 쉽게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다. 85년생 과거에 묻어 두었던 비밀들의 실체가 사실로 드러나는 형세를 이룰 것이다. 97년생 길레가 거침없이 펼쳐지리라. 행운의 숫자 : 24, 54</p>	<p>31년생 마지막 까지 최선을 다해야 이룰 수 있다. 43년생 큰 규모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55년생 마음이 풀리어 쉽게 빠져들기에 충분하다. 67년생 공존공영의 기반이 성립되는 도망이다. 79년생 단단히 각오하고 담비지 않으면 아니 된다. 91년생 손꼽아 기다릴 일이 생길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6, 89</p>
<p>38년생 의외로 결과는 빨리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50년생 상대의 깊은 마음속을 어찌 다 알 수 있겠는가? 62년생 과거의 잘못을 비로소 깨닫게 될 것이다. 74년생 참여하면 여러 가지 부가적 이익이 따르리라. 86년생 유독 빼어난 것이 보이니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98년생 금석지간에 취한 허투가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7, 98</p>	<p>32년생 비약하면 무리가 따른다. 44년생 일말의 가능성이 보이니 잘 활용해 보자. 56년생 복음이 늘어나니 즐거움을 더하라. 68년생 정도를 벗어난다면 당연히 무미해질 수밖에 없다. 80년생 일일일단 있어서 확실히 마음을 정하지 못한다. 92년생 잘 알아보고 써야만 부작용이 없다. 행운의 숫자 : 34, 74</p>
<p>39년생 여유로움이 완벽함을 담보할 수 있다. 51년생 장애물이 사라지면서 뜻한 바를 이루리라. 63년생 미리 선수를 치지 않으면 오히려 당하게 된다. 75년생 많은 재앙이 일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87년생 부담을 무릅쓰고라도 제대로 해야 얻겠다. 99년생 부실함과 혼란이 보이는 과도기이다. 행운의 숫자 : 64, 58</p>	<p>33년생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라. 45년생 넘치는 것은 부족함만 못하느니라. 57년생 빈대잡으려다가 초가삼간을 태울 수도 있다. 69년생 속사정이 따로 있음을 알아야 한다. 81년생 잘만 활용한다면 상당한 수익으로 연결 될 수도 있겠다. 93년생 집착을 떨쳐버리고 평정심을 유지한다면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0, 61</p>
<p>40년생 실제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 보인다. 52년생 길서의 깃발이 험하게 나부긴다. 64년생 유창한 능변에 휘둘릴 수도 있으니 긴장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76년생 세철목에 신경 쓰다가 감각을 놓칠 수다. 88년생 수상하다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옳다. 00년생 확실하게 검토하고 실행하는 것이 백 번 낫다. 행운의 숫자 : 02, 84</p>	<p>34년생 재물운이 그 어느 때보다도 왕성하다. 46년생 형평성의 논란에 휩싸일 수도 있다. 58년생 사실상 교착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70년생 자신이 예상해 왔던 바대로 진행하게 되리라. 82년생 발단은 가장 가까운 이들로 부터 비롯된 것임을 명심하라. 94년생 일시적인 반목이나 불협화음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14, 53</p>
<p>41년생 협조해 주는 이의 힘이 지대하다. 53년생 역지사지 해본다면 모든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 되리라. 65년생의 무작위로 이행해야 하는 부담감이 크다. 77년생 단독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음을 알라. 89년생 쉽게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겠다. 01년생 여태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 서서히 불거지고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17, 77</p>	<p>35년생 숙연으로 인한 진척으로 인해 해택이 주어질 것이다. 47년생 소신껏 조처하라. 59년생 이렇까 저렇까 망설이지 말고 과감하게 받아들여도 별 탈이 없다. 71년생 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살펴 볼 일이다. 83년생 미진한 가운데에서 버티는다고 고생이 많았다. 95년생 방심하고 있다면 어려운 경우를 당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08, 57</p>